

10_1. 임직 그리고 사임_1 (1971~1973)

1971년(50세) 1월 18일 「Violin Concerto No.2」를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2월 27일 『교향곡 제9번』을 연세대 출판부에서 출판하였다.

나운영에게 드디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 지긋지긋했던 연좌제가 폐지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복에 가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운영은 그동안 동경유학시절 자신을 이끌어 준 은사조차 찾아뵙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었다.

3월 3일~17일 드디어 나운영은 연세콘서트콰이어를 이끌고 그 첫 번째 해외연주여행을 일본 오사카 大阪로 떠났다. 나운영은 그동안 편지로만 안부를 물어 왔던 은사들을 찾아뵈었는데, 첫 번째로 5일 재능교육으로 너무나 유명한 스즈키 신이찌(松下眞一) 선생을 만나 뵈었고, 10일 남영우 선생, 아사히나다카시(朝比奈隆) 선생을 만나 뵈었다. 13일 이수철 씨를 면회하고, 15일 은사 모로이 사부로(諸井三郎) 선생을 찾아뵈었고, 키지마(貴島) 선생도 만나 뵈고 귀국하였다.

3월 30일 연세콘서트콰이어 귀국 연주회를 가졌다.

4월 15일 <제2회 서울음악아카데미 음악회>를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 음악회 프로그램에서 나운영은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였다.

1. 기술이 끝난 데서부터 예술은 시작된다.
2. 인격과 기술을 갖춘 음악가가 되자.
3. 세계성을 띤 민족음악을 창조하자.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을 거듭해 온 서울음악아카데미의 두 번째 발표회를 맞이하면서 조기교육과 종합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랄 뿐입니다.

5월 8일 연세논총 9호에 논문 「제주도 민요의 작곡학적 연구 1」을 발표하였다.

6월 6일 오후 3시 서울성남교회에서 담임목사 이해영 목사의 집례로 오형범, 한경숙 장로와 함께 **서울성남교회 장로 임직**을 받았다. 김재준 목



사가 설교를 하였고, 최윤관 목사와 조향록 목사가 권면을, 김정준 목사가 축사를 하였다.

10월 5일 『한국 성가곡집 제1집』을 악원사에서 출판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합창곡들은 대부분 서울성남교회 성가대가 매주 예배를 위해 연주하던 곡들을 모은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세상의 빛」은 입례송으로 번갈아가며 사용되던 곡이고, 「기도송」과 「헌금찬양」 그리고 폐회송인 「성 삼위께 영광」도 매주 예배의식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골고다의 언덕길」은 부활절 예배 때, 「감사 찬송」은 추수 감사절 예배 때, 「찬양하세 아기 예수」는 크리스마스 예배 때, 「하늘 가는 길」은 장례 예배 때 사용하였으므로 이 성가집이야말로 예배를 위한 실질적인 성가곡집이라 할 수 있겠다.



나운영은 평소 교회음악을 통해서 더욱 은혜를 받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는 물론 교인이 교회음악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⁵⁾ 또한 나운영은 ‘교회 안의 음악 (Music in Church)’이 아닌 진정한 ‘교회음악(Church Music)’은 음악을 통한 기도요, 음악을 통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다.¹⁰⁶⁾ 더욱이 교회음악은 예배순서의 2/3를 차지하므로 성가대는 직접 예배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예배를 주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나운영의 신념에 의해 서울성남교회 성가대는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구성된 이 성가곡들로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서울성남교회를 처음 방문한 신도들은 이 성가곡들이 풍기는 색다른 매력에 흠뻑 젖을 수 있었고, 더욱이 서울성남교회 전면의 스테인그라스의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파이프 오르간의 음색은 다른 교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비로움을 더해 주었을 것이다. 물론 매주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토박이 교인들에게는 지겨울 수도 있었겠지만….

10월 13일~26일 「교향곡 제9번」이 제9회 「大阪の秋」 국제현대 음악제 당선곡으로 선정되어 다시 일본으로 갈 기회가 생겼다. 마침 윤경주부합창단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나운영, 유경손

105)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57쪽

106)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52쪽

부부는 합창단을 인솔하여 함께 일본여행을 하였다.

10월 19일 「교향곡 제9번」이 일본 오사카大阪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제9회 大阪の秋 국제현대 음악제>에서 오사카 필하모니 교향악단과 아사히나 다카시(朝比奈 隆)의 지휘로 재연되었고, 24일 모로이 사부로(諸井三郎) 선생 댁을 다시 방문하였다.



12월 22일~23일 그리고 29일~30일 타워호텔에 머물며 김문웅 대본 그랜드 오페라 「에밀레종」(4막 6장) 작곡을 시작하였다.

대본을 쓴 김문웅은 「방랑시인 김삿갓」등 가요 작사자로 잘 알려진 작가로서 창작 오페라 진흥단체로 재발족한 국제오페라협회 대표를 맡고 있었다. 김문웅은 창작오페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 오페라를 일본, 미국, 서독 등지에서 순회공연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은 국내 오페라 사상 최초의 시도였다. 나운영은 이 원대한 꿈에 도취되어 한국적이면서도 현대화된 오페라를 작곡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당시로서는 무모한 계획에 불과했다. 정부의 지원만 애타게 기다리던 나운영과 김문웅은 결국 이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지 못하였다.

1972년(51세) 2월 3일 경주를 답사하고 에밀레종 종소리를 직접 감상하였다.

3월 5일 **한국 교회음악협회 중앙위원**, 6일 **한국 찬송가 위원회 음악분과 위원**, 13일 어린이찬송가 편집위원장, 19일 교회음악협회 창작부장에 취임하였다.

3월 21일 워릿써 오르간을 구입하였다.

나운영과 유경손은 정식 오르가니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로 누르는 페달건반을 연주하는데 늘 서툴렀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 좀 더 나은 연주를 하기 위해 큰 맘 먹고 이 오르간을 구입하였는데, 신품은 너무 비싸 중고를 구입하였더니 이것이 말썽이었다. 한 달이 멀다하고 수리를 해야 했는데, 몇 년이 못가 이 오르간은 유품 아닌 유품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3월 30일 제3회 서울음악아카데미 음악회를 YWCA 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4월 24일 오페라 「에밀레종」 피아노 스코어를 완성하였다.

4월 25일 12음과 12색을 창안하였고, 27일 무지개 음계, 무지개 화음을 창안하여 「교향곡 10번」의 2차 구상을 하였다.

4월 29일 오후2시 딸딸 효선孝璇이 극동방송국 잔디에서 당시로는 보기 드문 야외결혼을 하였다. 나운영이 첫 사위를 본 것이다. 사위는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한 박상헌(朴商憲)으로 당시 극동방송국 PD였다. 이 날 주례를 맡은 문익환 목사는 나운영 부부와는 예전부터 각별한 사이였고, 또한 사위 박상헌의 경기고등학교 동창으로 단짝 친구인 문호근(연극연출가)의 부친이기도 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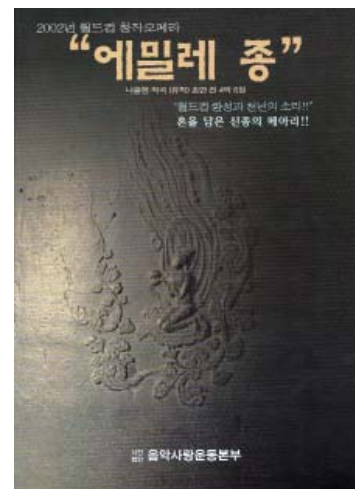
5월 3일 한일 작곡 세미나가 열렸는데, 6일 은사인 모로이 사부로를 초청하였다.

5월 8일 어린이찬송가를 편집하였고, 우이동 그린 파크에서 「교향곡 제10번」 3차 구상을, 6월 16일 다시 우이동 그린 파크에서 「교향곡 제10번」 4차 구상을 하였고, 오페라 「에밀레종」 추가분을 작곡하였다.

7월 8일 한국 교회 어린이 음악협회 초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7월 19일 오페라 「에밀레종」 오케스트레이션을 완료하였고, 22일 최종 완성하였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레이션 악보가 행방불명되었다. 나운영 생전에는 연주되지 못했던 이 오페라가 2002년 월드컵이 한참인 6월 21일 예술총감독을 맡은 테너 김진원의 집념에 의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무대에 올랐는데, 이때의 오케스트레이션은 나운영의 것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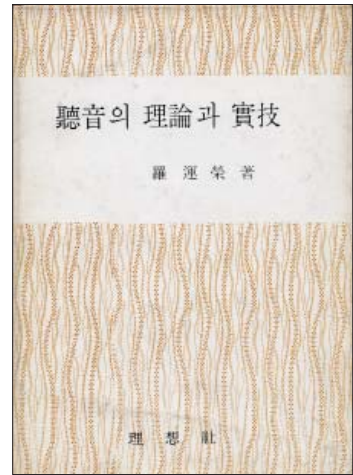
피아노 반주는 찾았는데, 아무리 서고를 뒤집어 봐도 오케스트레이션된 악보는 나오지 않았다. 1976년 2월 5일 문예진흥원에 악보를 재차 접수시킨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후 분실되거나 한 것 같다.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김진원은 나운영과 생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공연은 꼭 해야 한다며 피아노 악보를 토대로 편곡을 의뢰하였다. 김덕기의 지휘로 연주된 이 오페라가 세상에 얼굴을 내민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나운영의 그 맛은 아니었다. 혹시라도 이 악보가 발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10월 19일 이동범 한국 성가 독창회에서 「주기도」를 초연하였다.

12월 5일 『합창편곡법』(이상사)이 출판되었고, 함께 『청음의 이론과 실기』(이상사)가 출판되었는데, 그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위 음치(音癡)란 말이 있다. 그러나 정신병자와 청각을 잃은 자 이외에는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음치란 없다. 흔히 이론 체계 없이 강요되는 청음 연습으로 말미암아 음치 아닌 음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죄중죄(罪中罪)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책은 단순한 연습 문제집이 아니라 청음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체계 세운 것으로서 내외에 유서(類書)가 없음을 밝혀 둔다. (후략)



나운영은 이 『청음의 이론과 실기』의 부록에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나의 Solmization>과 1972년 9월 2일 창안한 <나의 속기법(Stenographic Notation)>을 소개하였다.

12월 6일 『교향곡 제3번』 스코어를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하였고, 10일 **아주 작곡가 연맹 명예 회원에 취임**하였다.

12월 12일 「교향곡 제10번 ‘천지창조’」(Symphony No.10 ‘The Creation’)를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모두 7악장으로 제1악장 ‘빛을 지으심’은 Harmony만을 위한 음악, 제2악장 ‘천지를 가르심’은 Rhythm만을 위한 음악, 제3악장 ‘육해를 가르시고 식물을 지으심’은 Melody만을 위한 음악, 제4악장 ‘하늘의 질서를 지으심’은 Melody와 Harmony를 위한 음악, 제5악장 ‘새와 물고기를 지으심’은 Melody와 Rhythm을 위한 음악, 제6악장 ‘짐승과 사람을 지으심’은 Rhythm과 Harmony를 위한 음악, 제7악장 ‘안식일을 복 주사 기록하게 하심’은 Rhythm과 Melody와 Harmony를 위한 음악으로서 무지개 음계(Rainbow Scale), 무지개 화음(Rainbow Chord)을 창안·시도한 작품이다.¹⁰⁷⁾

Graphic Notation을 도입하고 7악장제를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기편성에 있어서 대편성을 하는 등 매우 의욕을 보인 이 작품에 대해 나운영 스스로 문제작이라고 했듯이 새로운 테크닉을 구사한 실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1973년(52세) 2월 1일 외손녀 박소현이 출생하였다. 나운영이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3월 10일 **목원대학 시간강사에 취임**하여 격주로 토요일에 공주로 내려갔다.

나운영은 자신의 수상집에서 ‘나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유언에 대한 글을 남겼었다. 그 하나는 4월 7일 결심한 제주도 용수리에 묻히기로 한 결심이고, 다른 하나는 5월 2일 결심한 자신의 눈을 사후(死後)에 바치기로 한 결심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유언은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선언한 유언은 아니

107)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8쪽

었고, 나운영 스스로 자신의 메모에, 또 자신의 수상집에 글로 남긴 유언이었다. 이 두 가지 유언 아닌 유언은 모두 지켜지지 못했다.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갈 지는 가족들도 그 자신도 정말 몰랐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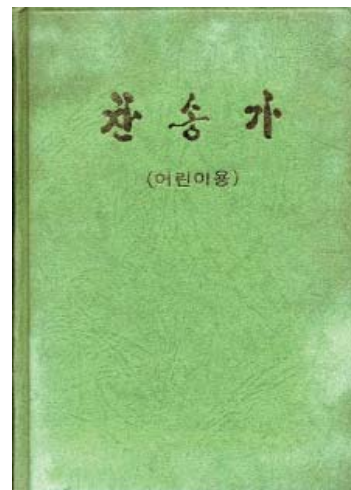
6월 15일 「사랑이 제일일세」(오소운 작사)를 작곡하였다.

7월 10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서리에 취임하였다. 1966년부터 학장을 맡아오던 이인범(1914~1973) 교수가 신병으로 인해 학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나운영이 그 직을 이어받게 된 것이다. 나운영은 학장이 되자마자 연세대학교 음대생들의 숙원이었던 음악대학 단독건물 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때까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은 대강당에 강의실과 연습실을 두고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 나운영은 연세음악 55년을 기념하면서 현제명 박사 기념관(음악대학 단독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기성회를 발족하였다.

7월 30일 대한 예수교장로회, 한국 기독교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공동 편찬한 『찬송가 어린이용』(대한기독교서회)이 출판되었는데,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나운영의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판된 어린이 찬송가는 1936년에 현제명 선생이 편찬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리 찬송가가 9곡이 수록되었다. 두 번째로 출판된 것은 1953년에 장수철, 박재훈 선생이 편찬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리 찬송가가 36곡이 수록되었다. 세 번째로 출판된 것은 1962년에 강소천 선생과 필자가 편찬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리 찬송가가 52곡이 수록되었다. 네 번째로 출판된 것은 1968년에 박재훈, 이동훈, 구두희 선생이 편찬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리 찬송가가 49곡이 수록되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한국찬송가위원회에서 편찬한 어린이용 찬송가에는 우리 찬송가가 87곡이나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찬송가와 흑인영가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곡이 160여곡이나 수록되었으니 이만하면 찬송가 어린이용의 결정판이라 해도 좋을 줄로 생각된다. (후략)



8월 19일 제주도 삼보교회 첫 예배를 드리고 20일 한국 민속음악 박물관을 창설하고 관장에 취임했다. 이 박물관은 북 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 황새 다섯 마리가 찾아와서 알려진 용수저수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주도 민요채집을 할 때마다 도움을 주어왔던 고산학(高山鶴, 1919~1981)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를 2천여평 사들여 우선 20여평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박물관 별관을 짓고 여기에 공후, 아쟁, 거문고, 가야금, 해금, 대금, 중금, 통소, 단소, 당피리, 향피리, 태평소, 양금, 장구, 북, 징, 박 등 20

여종의 악기와 30여권의 악보와 40여권의 악서 그리고 옛날 S.P. 국악 레코드 1백여장, 4백여곡이 수집된 녹음테이프 등을 진열해 놓았다.¹⁰⁸⁾



9월 26일 기장 58회 총회에서 연합성가대를 지휘하였고, 10월 1일 **제5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심사 위원에 취임**하였다.

10월 16일 오후 6시 연세음악 55년 기념전시회를 대강당 2층 음악대학 관현악실에서 개최하고, 오후 7시 현제명 박사 추모음악회를 대강당에서 연 다음, 오후 8시 음악대학 101강의실(대강당 1층)에서 현제명 박사 기념관 건립기성회를 개최하였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은 초대 김영환(1918~1928,10년간 재직), 2대 현제명(1929~1943,14년간 재직), 3대 문학준(1946~1948,2년간 재직), 4대 박태준(1948~1966,18년간 재직), 5대 이인범(1960~1973,13년간 재직)이 이끌어 왔는데, 그 중 특히 현제명은 연세대에 처음으로 합창부와 관현악부를 조직하였고, 남녀중학 콩쿨, 하기 음악강습회를 개최하였으며, 추기음악회를 10년 동안 18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연세대 음악대학을 발전시키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최근 일제하에서의 친일행적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암울했던 그 시절, 누군가 말을 수박에 없는 그 악역을 그 스스로 짊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향악단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그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발전시킨 것도 모두 그의 공로이다. 그의 잘못도 밝히면서 아울러 그의 공로도 인정하는 것이 후대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어쨌든 이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건물은 1976년에 완공되었으나 처음 의도대로 현제명 기념관으로 세워지지

108) 나운영 수상집 3집 '스타일과 아이디어' 134쪽

못했다.

11월 10일 밤 11시에 「12 Preludes for Piano Vol.1」을 작곡하기 시작하여 다음날 완성하였고, 13일 예술극장에서 열린 한국현대음악협회 주최 <Triton 제1회 작곡발표회>에서 임헌원에 의해 초연되었다. 나운영은 김병규, 권영숙 두 제자와 함께 한 이 연주회 인사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TRITON이란 3전음(三全音)으로서 현대화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음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Russian Five나 French Six처럼... 뜻을 같이하는 세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12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메시아 대 연주회>에서 헨델 작곡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교파를 초월한 700명의 성가대원이 출연한 연합성가대를 지휘하여 연주하였다. 참가한 교회는 동신교회, 동승교회, 승동교회, 새문안교회, 성남교회, 아현성결교회, 영락교회, 정능교회, 장석교회, 종교교회, 초동교회이며, 반주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맡았고, 채리숙, 김청자, 엄정행, 윤치호가 독창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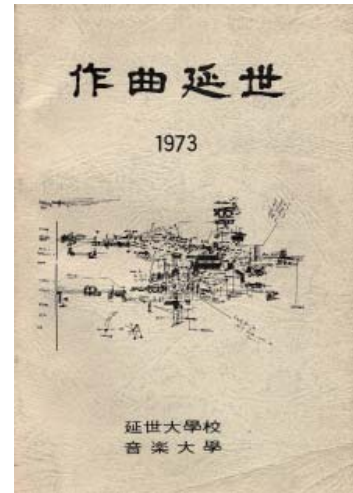


12월 21일 예술가곡 「자장가」 (조병화 시)를 작곡하였다.

12월 「피아노를 위한 12 전주곡 1번(12 Preludes for Piano Vol.1)」(작곡연세)이 출판되었다. 당시 국내 처음으로 교수와 학생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출판한 작곡집 『작곡연세』 창간에 즈음한 나운영의 인사말을 들어보자.

작곡을 해 놓아도 연주가 안 되고, 출판이 안 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작곡연세』가 출판되었다는 것은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학생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엮어 놓으니 마치 우리나라 현대음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책이 매년 계속해서 출판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모색에 모색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 작곡계에 뚜렷한 방향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곡집에는 음악대학장 나운영, 작곡과장 박재열, 교수 나인용의 작품과 함께 대학원생 최동선, 김청묵과 재학생 나성호, 박병환, 강성란, 박순희, 공두봉의 작품이 실려 있다.